

주일가정예배

2022년 7월 24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모든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시46:10,11)

은혜와 평화의 하나님

한결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오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지난 몇 년간 전 세계를 괴롭힌 코로나가 다시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불의한 전쟁으로 피와 눈물을 흘리는 연약한 이들도 있고 높아진 물가와 불안정한 일터 때문에 힘겨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험악하여 지는 세상에서 하나님 밖에 기댈 곳 없는 이들에게 설만한 물가와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위로와 안식과 평화를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70장 다같이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만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 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 령)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출애굽기 2장 21-22절 인도자

21.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심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22.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숨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
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설 교 『 게르숨으로 살다 』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찬 송 382장 다같이

1.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2.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3.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4.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후 령)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 멘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
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
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광 고 】

1.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꿈의 정원과 청년부에게 은혜로운 여름되게 하옵소서.
2. 안식월을 갖는 담임목사님에게 참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3. 교회 사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이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4. 헌금안내

※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게르숨으로 살다

출애굽기 2:21-22

이승운 목사

모세는 애굽에서 히브리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지만 유년 시절에는 애굽의 왕자로 보냈다. 당시 바로가 ‘히브리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냈더니, 그것을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 아기 모세를 양자로 삼아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굽의 왕자로 성장한 모세가 뜨거움을 느꼈던 대상은 ‘애굽의 것’이 아닌 ‘히브리 노예들’이었다.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가 청년 모세의 가슴을 뛰게 했다. 모세가 애굽 감역관을 쳐 죽였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는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다. 인생 역전의 대명사였던 모세는 다시 한번 그 인생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당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도망자, 살인자, 나그네 신세로 전락했다. ▶ 영락한 모세는 ‘미지의 땅 미디안’에서 터를 잡고 양치기로 살아갔다. 모세에게 첫아들이 태어나자 모세는 그 아이에게 게르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내가 타국에서,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뜻이다. 게르숨은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존귀한 곳, 또다시 밑바닥까지 내동댕이쳐진 자기 자신을 상징한다. ▶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게르숨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이고 도망자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저 높은 곳, 주님 계시는 저 하늘을 향해 있지만, 우리 발은 땅을 딛고 있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서 땅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의 심정은 바울의 다음 말씀으로 요약될 것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 ▶ 이 땅에서 반쪽짜리로 산다는 것은 어렵도 없는 이야기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땅에서 이루어 가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할 것만 같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게르숨이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출 3:12). 하나님은 3장 이후부터 기적들을 일으키시는데, 이스라엘은 출애굽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40년 내내 기적의 한 가운데 살았다. 이 기적의 중심에 모세가 있었다. 모세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출 3:12)는 약속 말씀을 받았었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너는 못 한다. 너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 약속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는가? 아니다. 오늘도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 황혼에 접어든 120세의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 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 하리라”(신 32:52). 이때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룰 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이다. 하지만 모세는 오히려 기뻐할 것 같다.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너는 못 들어간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모세는 오히려 미소로 수긍했을 것 같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시겠다는 약속 말씀을 평생 지키셨기 때문이다. ▶ 우리는 모두 게르숨이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 이방인들이다. 믿고 의지할 구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한다.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사모함으로 매일매일 기적의 한가운데로 걸어 나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